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8월 23일 (제80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에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명작이 따로 있나

기도원에 사는 박 장로는 산에서 어린 나무를 가져다 직접 분재를 키워 수십 점의 분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박 장로 화단에 있는 많은 분재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장로님, 나는 40년 전에 분재를 했었습니다. 장로님의 분재는 상품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분재란 자고로 분재분이 좋아야 하고, 곡(曲)이 많아야 고급스러운 겁니다. 또한 분재만 덩그러니 놓는 것보다는 산수경석(山水景石)을 배열하여 산의 축소판을 만들면 더욱 운치가 있고 고급스럽습니다. 예술 중의 예술은 석부작(石附作)입니다. 돌은 예술성이 뛰어나다한들 죽은 것이지만, 거기에 난(蘭)을 붙이면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예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재도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외국 베품시장에서 그림 한 점을 저렴한 가격에 사와 값이 좀 나가는 프레임(틀)에 끼웠는데, 지인이 보고는 몇 천만원 이상 호가할 그림이라고 감탄했던 일이 있다. 종로보석상가에 있는 금이나 백화점에 있는 금이나 같은 금인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진열과 포장에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이다.

그렇다. 같은 물건이라도 진열하기에 따라, 포장하기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인생도 그렇다. 이제 내가 ‘품위와 품격을 예절이라는 그릇에 담아라’는 말을 자주하는 이유를 알겠는가?



생각을 바꾸면 안경도 바뀐다

요즘 우리의 화두는 단연 ‘차선은 없다, 오직 최선뿐!’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이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집회기간 내내 진액이 다 빠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설교하셨다.

“생각을 바꾸면 달리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흔히 뚫린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결혼에 실패했고, 대학에 실패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흠집이 있어서...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니 어찌 미래가 꽃다발을 안고 환호하며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남편을 여섯 번이나 갈아치운 여자, 기

웠다고 그 큰 화선지를 버립니까? 그림 그리다보면 먹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인정하니까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방울의 먹물을 이용하여 난을 치면 멋진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심방을 가서 ‘저 벽에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시계요’, ‘액자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니, 왜 그게 보이냐? 넓은 흰 벽이 보여야지. 네가 앓고 있는 병은 저 시계에 불과한 거야. 네가 대장암이라면 대장 외에는 다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 암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나올 수

이가 אפשר’이라는 유행가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때서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제 나이는 지금 70을 바라보지만, 저는 앞으로 30년 더 일할 겁니다. 제 나이가 어때서요.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요. 모세는 80에 대업을 이뤘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자고로 대기만성형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안경이 바뀌고, 안경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생각이 바뀌면 남편이 근사해보이고,



우리의 영·혼·육 모두를 살지게 한 하계산상집회(2015년 8월 3일 ~ 20일, 예수중심기도원)

생의 아들로 태어난 자, 청춘과부가 된 이방 여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여자 등, 흠집난 자들이 버젓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과거를 잘라내고 생각을 바꾸니 미래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모작이 아닙니다.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합니다. 한 번 인생농사를 망쳤다고 굶어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다시 모를 심으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라내야 합니다. 과거라는 멍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화선지에 먹물 하나 떨어

었다.”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신발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두 영업사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본부에 “여기는 신발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신발 팔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는 신발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무진장 신발을 팔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펼쳐질까요?

썩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의 암입니다.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듣는 노래가 있는데, ‘내 나

자식이 듅직해 보이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만물이 상품으로도 보이고, 생각이 바뀌면 내 자신의 장점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걸렸습니까?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생각을 바꾸는 것에 돈도 학벌도 미모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잡보지 못하던 소년이 고침을 받고 눈물로 기뻐한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6:21~24)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라

올림픽공원 싸이클 경기장에서 손바닥만 한 구름으로 작업하던 태양을 가린 일, 몽골에서 비바람을 멈추고 집회를 한 일, 수많은 앓은뱅이를 일으킨 일, 소경을 눈 뜨게 한 일, 4명의 죽은 자를 살린 일... 그동안 저를 통해 일어난 기사와 이적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꽤 오래 전의 일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저더러 "이초석, 너는 절대 못 쫓아." 이러는 겁니다.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못 쫓아. 그런데 너 예수 알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 했더니 바로 귀신이 떠나고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 이초석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예수 이름을 소유했기에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복종을 하는 것일까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마1:21).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요17:11). 즉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곧 '예수'입니다. 곧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권세를 예수께 주시고(마28:18) 이 땅에 보내셨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도적을 소탕하면 평안이 오고 간첩을 잡아내면 평화가 온다

것, 그리고 땅 아래의 것들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2:9~10).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14:26).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도 예수인 것입니다.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6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

라." 분명히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미문에 있던 앓은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행3:1~10). 그러니 그것이 소문나면 결국 그들이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시인해야 했기에 그들은 예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와 바울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아니 다른 이름으로 오셨다면 분명 후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에 그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때 너 회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요5:43).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법정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행4:10)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들어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지 못했던 악한 것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단을 들어, 교리, 학설과 이론을 들어 예수 이름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교단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까? 왜 시베리아에서 한밤중에 경찰조사를 받고, 키르기스스탄에서 KGB에 끌려가 감금을 당하며, 종교재판을 받아 추방을 당했습니까? 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부귀가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사랑

과 용서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14:13).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용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고사하고 토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돈도 주머니에 있을 때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돈을 사용해야 돈의 권세가 나타나듯, 예수 이름을 소유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야 예수 이름이 나가서 여러분이 구한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 먹고 병어리 된 귀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신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어찌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느냐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총알은 좋은 것인데 총구가 녹슬면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 원짜리와 천 원짜리의 가치가 다르듯 하나님의 능력 또한 기도의 양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싶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막1:27). 할렐루야!



16:17~18).

즉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함은 곧 성령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개한 자에게 임합니다(행2:38).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 곧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행1:8).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권세가 나타납니다. 왜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오셨기에 그 예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집사들이 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총알이 장전된 총일지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호랑이는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겨자씨만한 믿음::

사람을 얻는 경영

“장사꾼은 돈을 벌려고 뛰지만, 사업가는 사람을 얻으려 동분서주한다.” 목사님이 실업인 세미나에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성경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에 기초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도 사업에 대해 워낙 문외한인지라 실감을 못했는데, 일전에 중국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의 성공기를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영업사원 시절, 중국 전역을 다니며 많은 중소 상공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사업이 홍보부족에서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윈은 그들에게 인터넷 기업 홍보에 대해 설명하며 무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다. 한 푼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요청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자신이 만든 사이트에 기업홍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그 결과 중국을 넘어 전 세계 5,700만개 기업이 그의 사이트로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동종업체에 한해서는 차별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허용하고 그 광고비를 받기 시작했다. 그 엄청난 수의 참여기업이 만들어낸 사이트가 결국 오늘의 알리바바 그룹을 탄생시킨 셈이다. 한 해 매출이 삼성전자의 1.5배라 하니 당장의 수익보다 봉사정신으로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상상치 못한 부를 낳은 것이다. 오늘날, 국경을 초월하는 네트워크 경제 체제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성공의 키라고 한다면, 잠언의 말

씀처럼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요즘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성장세를 봐도 그렇다. 우버택시가 철수한 빈자리를 급속도로 잠식하며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역시 무료서비스를 통해 택시와 고객을 연결해주고 있다. 알리바바나 카카오택시 등,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사업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은 동종 업계의 1인자가 되기 전까지는 무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성공요체는 결국 참여자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쟁업체나 후발업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 지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마음껏 수익창출에 나선다. 말 그대로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사람을 얻는 사업, 사람을 얻는 경영, 사람을 얻는 정치, 사람을 얻는 목회, 다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인생 성공의 키 역시 사람을 얻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여 신뢰를 얻어야 하고, 나의 유익보다 먼저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Henry Han
henry8829@naver.com

광복 70년, 다시 하나로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식민지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설움을 딛고, 6·25전쟁으로 모든 것이 황폐화된 가운데,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광복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는 국가였다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비참한 현실에 굴복하기보다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강한 국민적 열망으로 현실에 도전하여 얻은 열매이기에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낙관하지 않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해졌고 저출산,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한 북한은 우리 쪽

DMZ에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 남북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이 이루었던 예전의 영광을 기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세계적인 전환기에 있는 지금, 보다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민족적인 염원은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새로운 동력이다. 준비하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이다. 맑은 날에 비올 것을 대비해야지 비온 날에 대비한다면 늦어서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 위기를 극복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민족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을 대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깨어 있다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을 것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12)



::성경에세이::

하나님을 빗쟁이로 만들어라

여보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뭘지 아는가? 그건 바로 빗쟁이래네. 돈 빌려준 채권자 말일세. 우리 성도가 한 말인데, 그가 웃으며 하는 말이,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더군. 빌려왔으니 당연히 이자까지 쳐서 줘야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무섭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하나님을 빗쟁이로 만들면 어떨까? 여기서 빗쟁이란 빚을 진 자를 뜻하네. 채무자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빌리실까 하겠지만, 하나님을 빗쟁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귀하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19:17).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귀여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스스로 빗쟁이가 되시는 셈이지. 물론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면 보상하시겠다는 의미이고, 적극적으로 구제에 힘쓰라는 말씀이지. 허나 하나님이 스스로 빗쟁이가 되셨으니 얼마나 넘치게 이자를 쳐주시겠는가 말일세. 우리는 맡겨놓은 것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라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세.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25:35~40).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대접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더불어 빗 청산까지 하셨네. 고벨료가 왜 이방인 최초로 구원의 반열에 들었고, 성령을 받았는지 아는가? 그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

님이 스스로 빗쟁이가 되어 빚 청산을 하신 거라네. “고벨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행 10:4).

여보게! 언젠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둘째 동생을 도와주라고 하셨네. 나는 도울 수 없다 했지. 이미 동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네.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내가 야속할 수밖에. 우리 어머니는 거절한 나에게 울부짖듯 말솜하셨지. “네 자식이 그래봐라! 지금처럼 할 수 있나!” 어려움 당하는 형제가 있으면 서로 돕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서 스스로 빗쟁이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 자, 구제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인터넷에서 퍼온 작자 미상의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해야 할 일이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후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 하나님은 3등입니다. /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지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 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 나도 하나님을 언제나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그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파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가장 귀한 그 자리~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나의 1등, 나의 전부 예수님, 사랑합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내가 매일 기쁘게::

::참된 깨달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항상 느끼며 산다. 우리 속담에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거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참된 진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더 좋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냥 좋은 것으로만 계속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복이 복인 줄 알아야 진짜 복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 공부, 사업, 교우관계, 가족관계 등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점점 지치게 되었다. 일이 꼬일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져 가고, 해야 할 일은 쌓여만 가는데 능률은 떨어지고 자꾸만 의기소침해졌다. 그런 타이밍에는 항상 악한 것들이 계계를 일으킨다. 의기소침해진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여 결국 좌절하게 만들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나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리느라 상대방에게 줄 상처와 아픔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더 이상 좌절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쯤이었다.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나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셨다. 마음의 위안과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느끼면서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행했던 악한 행동들에 대해 회개를 해야만 했다. 진심을 다한 나의 회개와 반성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였다. 지지부진하던 학업은 극적으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불안하던 교우관계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 나날이 행복의 웃음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 부모님과 있었던 갈등은 내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부모님의 넓은 이해와 배려로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져버

리고 말았다.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가던 곳을 가고, 매일 먹던 음식을 먹고 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180도로 달라졌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안식처가 되고,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되었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이 기쁨의 충만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온갖 문제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던 나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신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혹시 지금 내가 견잡을 수 없는 낙망과 후회로 방황 중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질 수 있을 줄 착각했지만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쓸쓸히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소망과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돈, 명예, 아름다운 이성... 그것만 잡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정작 잡고나면 사막의 신기루와 같고 밀려왔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과도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질없는 가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입니다. 죽은 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응급처치법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법을 알아보자.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수사고의 경우, 익수자를 물에서 건져낸 다음 배를 돌려 마신 물을 토해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물에 빠져 의식이 없는 사람의 배를 누르면 위 속의 내용물이 역류하여 올라오면서 기도를 막아 숨을 쉴 수 없게 되거나 구토물이 폐 안으로 들어가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고 인공호흡을 해준다. 또한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 등으로 체온을 보존해준다. 의식 및 맥박이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등산을 하다가 골절이나 발목을 뺨 경우 통증과 부종이 발생했을 때는 RICE법

을 기억하도록 하자. R(Rest), 즉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I(Ice), 냉찜질을 해주며, C(Compression), 부드럽게 압박하거나 부목 등을 이용해 고정해주고, E(Elevation), 부상부위를 높이 들어 올리도록 한다. 화상의 경우 열상화상은 피부손상의 정도에 따라 1~3도 화상으로 그 정도를 나누는데, 1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화상 입은 부위가 붉게 변하지만 물질은 안 생긴 상태로 경미한 통증을 동반하여 치료 시 후유증 없이 완치된다.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일부의 화상으로서 물질이 생기고 붓고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3도 화상은 진피의 전 층이 손상되거나 피하조직까지 손상된 상태로 3도 화상을 입은 부분은 건조되어 피부가 마른 가죽처럼 되면서 갈색 또는 흰색으

로 변한다. 말초신경과 혈관이 파괴되므로 3도 화상을 입은 부분은 감각이 마비되거나 주변의 털 손상된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환부에 차가운 물을 부어 10분 이상 식혀 열 손상을 막아야 한다. 옷이 들러붙었을 경우無理하게 떼어내지 말고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감싼 후 병원을 가도록 한다. 화상 부위를 소독한다고 소주를 붓거나 된장 등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화상의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위험한 순간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위험에 처한 주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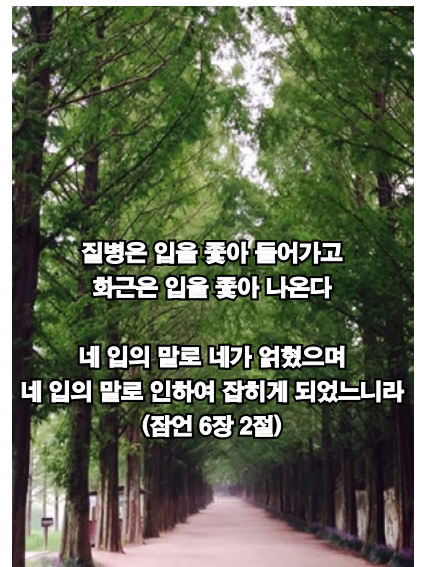
나의 멘토!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이 있는데 조선 후기 유명한 실학자요, 천주교 신자였던 정약용 선생이 유배되어 11년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는 이곳에 살면서 오백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 다수의 제자들을 길러 냈는데, 그 중에 ‘황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자 학자가 70이 넘는 나이에도 학문에 정진하며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은 귀양지에서 20년을 계시면서 날마다 저술에만 힘써 복사뻘가 세 번이나 구멍이 났다. 선생님께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친히 가르쳐주신 말씀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한데 어찌 그 가르침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라며 고희의 나이에도 스승의 가르침을 몸소 행했다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하계산상집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내용,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생활고, 또한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가 떠나갈 때 눈물로 통곡했던 가슴 아픈 사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결국 그 모든 시련들이 큰 믿음의 작품이 되어 단에서 간증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들이 참으로 어떤 분을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믿음의 거장이며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이 초석 목사님입니다. 얼룩송아지 엄마 닮는다더니 우리 교단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믿음은 참으로 우리 목사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은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큰 믿음을 닦아 극한 상황 속에서 배운 대로, 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마10:24~25)고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믿음의 은총은 참으로 족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집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네 입의 말로 내가 업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잔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